

[취재] 2011 하반기 넷이벤츠 인터뷰 V: 브로케이드

[종목] 컴퓨터 [분야] IT일반 [작성자] 류재용 [작성일] 2011.11.17. 00:41

2011년 11월 16일과 17일 양일 간의 일정으로, 태국 푸켓 소재 인디고 펄 리조트(Indigo Pearl Resort, Phuket, Thailand)에서 '2011 넷이벤츠 아시아태평양 기자간담회(2011 NetEvents APAC Press Summit, 이하 넷이벤츠)'가 개최되었다. 지난 4월에 열린 상반기 행사에 이어 열린, 11월 정례 하반기 행사다.

넷이벤츠는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기업의 C 레벨 임원들과 관련 시장조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업계 동향 및 각 기업의 전략 등을 소개하는 정기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IT 보안, 무선 기술, 영상 회의,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망, 통신 인프라 등 업계 이슈에 관한 기업 및 시장 조사기관의 발표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16일 넷이벤츠의 오후일정은 업계 주요 인사들과의 인터뷰 시간으로 할애되었다. 아크로팬은 브로케이드 임직원들과 만나 궁금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은 존 맥휴(John Mchugh) 부사장 겸 CMO와 데브 두타(Deb Dutta) 아태지역 부사장이 나섰으며, 웬디 랑(Wendy Lang) 아태지역 코퍼레이트 커뮤니케이션즈 매니저가 배석했다.



[취재] 2011 하반기 넷이벤츠 인터뷰 V : 브로케이드

[종목] 컴퓨터 [분야] IT일반 [작성자] 류재용 [작성일] 2011.11.17. 00:41

2011년 11월 16일과 17일 양일 간의 일정으로, 태국 푸켓 소재 인디고 펄 리조트(Indigo Pearl Resort, Phuket, Thailand)에서 '2011 넷이벤츠 아시아태평양 기자간담회(2011 NetEvents APAC Press Summit, 이하 넷이벤츠)'가 개최되었다. 지난 4월에 열린 상반기 행사에 이어 열린, 11월 정례 하반기 행사다.

넷이벤츠는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기업의 C 레벨 임원들과 관련 시장조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업계 동향 및 각 기업의 전략 등을 소개하는 정기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IT 보안, 무선 기술, 영상 회의,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망, 통신 인프라 등 업계 이슈에 관한 기업 및 시장 조사기관의 발표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16일 넷이벤츠의 오후일정은 업계 주요 인사들과의 인터뷰 시간으로 할애되었다. 아크로팬은 브로케이드 임직원들과 만나 궁금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은 존 맥휴(John Mchugh) 부사장 겸 CMO와 덤 두타(Deb Dutta) 아태지역 부사장이 나섰으며, 웬디 랑(Wendy Lang) 아태지역 코퍼레이트 커뮤니케이션즈 매니저가 배석했다.



▲ 노트북을 들고 포즈를 취한 존 맥휴(John Mchugh) 부사장 겸 CMO

Q1. (아크로팬) 상반기 넷이벤츠에서 HP, Oracle, Dell, EMC 등 파트너들에게 이더넷 패브릭을 제안해 고무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던 바 있다. 그런데 이후 들려온 소식들을 보면 어디어디와 어플라이언스를 만들었다는 식의 전통적인 협업 형태와는 다르게 서비스를 강조하는 추세다. 그 동안에 정책이나 전략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HP, Oracle, Dell, EMC, 히다치, 후지쯔 등과의 파트너십은 계속 할 것이다. 주된 미션 자체가 멀티벤더 환경에서 데이터센터 패브릭 분야에서 리더가 되고자 해서 그렇다. 계속해서 모든 업체들과 노력할 것이다. 그들이 데이터센터 패브릭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디자인된 솔루션 생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통합적인 세일즈 사이클과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가 길기 때문에, 기본 포트폴리오로서 제공하려는 회사들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자체적인 네트워킹 솔루션을 가진 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파트너십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Q2. (아크로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식으로 벤더 브랜드화되어가는 추세다. 그 안에서의 제품기획력이 리테일부터 엔터프라이즈까지 호소력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다. 이런 경향 속에서 원천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브로케이드가 직접 데이터센터 구축하고 서비스에 안 나서는 게 개인적으로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다. 네트워크 기업이라는 입장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보는가?

브로케이드는 네트워킹 회사다. 호스팅,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할 계획은 없다. 여러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혼란스럽게 갖고 간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객들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 딜리버리 체인에서의 고객들과 직접 경쟁을 하게 되면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네트워킹에만 전념하는 회사로 남을 것이다.



▲ 답변 중 노트북을 들어 파트너 리스트를 강조한 뎁 두타(Deb Dutta) 아태지역 부사장